

한국외대논술

인문계

목차

2026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3
토요일 T1 시험	3
일요일 T3 시험	11
2025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18
토요일 T1 시험	18
일요일 T3 시험	25
2024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33
T1 시험	33
T3 시험	41

2026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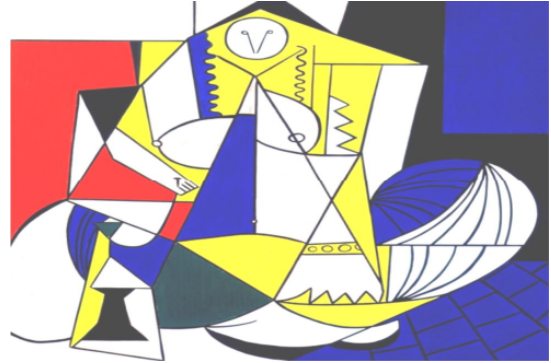
토요일 T1 시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



리히텐슈타인의 <알제의 여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1963년작 <알제의 여인>은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정물과 인물을 여러 시점에서 변주하던 피카소의 특성을 리히텐슈타인이 현대적 기법으로 새롭게 풀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피카소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을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이른바 큐비즘(cubism)을 창시하였고, 고전 미술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알제의 여인들> 역시 그러한 실험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리히텐슈타인의 <알제의 여인>은 피카소의 것보다 더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런 특징은 피카소의 화법을 단순히 모방한 게 아니라 피카소의 조형 언어를 팝아트의 방식으로 새롭게 변형·확장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다고 해서 리히텐슈타인이 변화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그는 피카소가 추구했던 ‘전통적 재현 방식에 대한 도전 정신’도 계승했다.

— 『MY ART BROKER』 재구성

[나]

최근 유통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단연 ‘디토(ditto) 소비’이다. Ditto는 라틴어로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디토 소비는 유명인의 소비 패턴을 모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현상을 칭한다. 이 점에서 단순히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상품을 소비하는 것과는 다르다. 디토 소비는 SNS를 기반으로 Z세대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나타났다. 문제는 디토 소비로 인해 유통 채널 전반에 재고 운영, 상품 구성,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인플루언서의 언급만으로 수요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되면 유통사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고 과잉 또는 품절이라는 리스크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이와 같은 소비 현상은 단기 노출 효과에 치우친 편향적 상품 구성,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 자체 브랜드(PB)·전략 상품의 존재감 약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매일경제』 재구성

[다]

전국(戰國)시대 조(趙)나라의 한단(邯鄲)에 사는 사람들의 걸음걸이에는 멋이 있었다고 한다. 북쪽 연(燕)나라의 수릉(壽陵)이라는 곳에 살던 한 청년은 한단 사람의 걷는 모습이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부러워했다. 그는 ‘만약에 내가 한단 사람의 걸음걸이를 배워온다면, 연나라에서 유명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한단 사람들의 걷는 모습을 배우기 위해 먼 길에도 불구하고 한단까지 갔다. 그의 눈에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소문대로 품격이 있어 보였다. 그는 곧바로 걸음걸이를 모방하

기 시작했다. 청년은 한단의 큰길에서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따라 했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이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원래의 걸음걸이를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로 결심했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처럼, 발을 뗄 때마다 발의 모양새를 어떻게 들고 또 어떻게 놓는지를 생각했다. 또한 다리와 팔의 조화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연습을 했으나 한단 사람들의 걷는 법을 배울 수 없었고, 오히려 원래 걷는 법마저도 잊게 되었다. 결국 청년은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기어서 간신히 연나라로 돌아왔다.

—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재구성

[라]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기술에 적용한 사례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라이트 형제는 대머리수리의 비행을 관찰해 비행기를 설계했고, 이순신 장군은 거북이의 형태를 모방해 거북선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가오리의 움직임을 본뜬 생체형 드론(무인항공기)이 개발되어 저수지의 수질을 측정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생체모방기술(biomimetics)에 기반을 둔 것이다. 생체모방기술은 ‘생명’을 뜻하는 bio와 ‘모방’을 뜻하는 mimesis의 합성 조어로,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기능을 모방해, 생산·설계 등에 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과학자들이 생물에 주목하는 이유는 생물이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특정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 온, 말 그대로 ‘검증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물은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 산물 역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삶을 더욱 풍요롭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 『더 사이언스 타임즈』 재구성

[마]

모방시(模倣詩)는 기존 시를 본떠서 쓰는 시, 즉 다른 시의 형식·주제·어조 등을 모방하여 창작한 시를 말한다. 원작을 똑같이 베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넣어 변형하거나 응용하는 창작 방식이라는 점에서 표절과는 다르다. 가령 원작 시의 운율과 표현법은 그대로 따르되, 새로운 소재와 주제를 담아낼 수 있다. 원작이 ‘별’을 소재로 했다면, 모방시는 ‘달’을 소재로 새로운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장정일 시인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은 모방시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시는 널리 알려진 김춘수 시인의 <꽃>의 형식과 표현을 그대로 빌어와 새로운 소재와 주제로 변주한 것이다. <꽃>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연으로 시작한다. 장정일은 이 연을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로 변형하였다. 그 뒤로 이어지는 나머지 연들도 <꽃>의 운율이나 통사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장정일은 꽃을 라디오로 바꾸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현대인의 사랑을 비판한다. 이처럼 모방시는 원작의 의미·정서·구조 등을 창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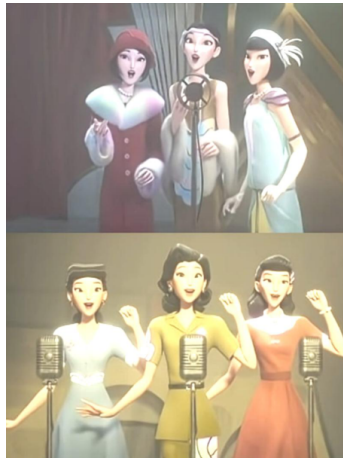
—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재구성

[바]

양무운동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을 기치로 내세워 중국의 전통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 기술을 도입해 자강(自強)을 추구한 근대화 운동이었다. 서양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사 개혁과 더불어, 해외 유학생 파견과 서양 과학기술 기관 설립 등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 운동은 겉보기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듯했으나 여러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서양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강을 실현하려 했지만, 개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채 서양식 무기를 비롯한 외형만을 모방하여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청·일 전쟁을 계기로 양무운동 세력은 외형적 모방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다.

— 고등학교 교과서 『동아시아사』 재구성

[사]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는 ‘헌트릭스’라는 K팝 아이돌이자 퇴마사 그룹의 이야기다. 이 영화에는 헌트릭스가 걸어온 길을 설명하며 선대 퇴마사를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때 다양한 3인조 여성 가수가 등장하는데, 제작진은 이 장면에서 한국의 실제 걸그룹을 의도적으로 등장시킨다. 예를 들면 영화 초반에서 ‘저고리 시스터즈’와 ‘김 시스터즈’가 나온다. 저고리 시스터즈는 조선악극단 여성 단원을 중심으로 1939년 결성된 한국 최초의 걸그룹이다. 김 시스터즈는 저고리 시스터즈의 리더였던 가수 이난영의 두 딸과 그의 조카로 구성된 그룹이다. 1953년에 데뷔한 김 시스터즈는 1959년 미국에 진출했고, 1973년까지 14년 동안 활동을 이어갔다. <케데헌> 제작진은 완벽한 고증을 통해 한국 걸그룹의 계보를 치밀하게 복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걸그룹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현대적 감각과 판타지적 스토리를 더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케데헌>에서 이처럼 과거 걸그룹을 소환한 이유는 K팝과 그 뿌리에 대한 존경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케데헌> 감독은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 영화는 K팝에 대한 헌사이자 리브레티다. 정말 한국적 뿌리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힌 바 있다.

— 『한경비즈니스』 재구성

[문제 1]

(가) ~ (바)를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80점)

[문제 2]

<보기 1>의 ‘법고창신’의 관점에서 (가)의 리히텐슈타인과 <보기 2>의 AI를 비교·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320점)

<보기 1>

조선시대에 옛것을 본받는 것과 새것을 창조해 내는 일 중 무엇이 더 중한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암 박지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것을 본받는 자들은 그 옛것에 구속되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병폐이고, 새것을 창조해 내는 사람들은 불경한 것이 병폐이다.”

이처럼 연암은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통합적 관점을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고 칭했다. ‘법고창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 1: 옛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조건 2: 새로운 것을 만들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

<보기 2>

“지브리 풍으로 바꿔줘”라는 말 한마디면, 사진 속 인물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손을 거친 듯한 그림으로 재탄생한다. 생성형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쉽게 이미지를 만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요소를 더하지 않고 원작자의 화풍은 물론, 작품의 구성, 색채, 모티브까지 그대로 모방한다. AI가 만든 지브리 이미지는 하나의 창작물처럼 보이지만, 그런 이미지를 예술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AI의 그림에는 지브리스튜디오가 추구해 온 근본적 가치, 나아가 그런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온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 내면적 성장, 일상의 아름다움, 전쟁과 폭력에 대한 성찰과 같은 본질적 요소들이 빠져 있다. 이러한 세계관 없이 만들어진 지브리 풍 이미지는 지브리의 외형적 특징만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AI가 만든 이미지를 두고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문제 3]

<보기 3>을 토대로 (사)의 사례가 오마주(hommage)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보기 3>

Hommage, a French term for “respect” or “reverence,” refers to an artist’s conscious tribute* to another artist or work. It differs from mere copying or parody in several respects. First, *hommage* is always intentional: the artist deliberately evokes the earlier work and invites the audience to recognize the connection between the two. Second, *hommage* involves transformation. It does not simply reproduce the original; instead, it recreates elements of the earlier piece in a new context, allowing the artist’s own interpretation to emerge. Third, *hommage* is built on respect. Unlike parody, which may twist or make fun of its original, *hommage* carries a feeling of gratitude for the earlier ideas that helped shape the artist’s vision. Only when these three elements come together does *hommage* become a creative dialogue across time, one that honors tradition while creating new value.

* tribute: 헌사, 감사, 찬사

■ 예시 답안

[문제 1] (400자 내외)

제시문 중 (가), (라), (마)는 긍정적 모방으로, (나), (다), (바)는 부정적 모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는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리히텐슈타인의 창작 사례를 제시한다. (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생체모방기술을 설명하고, (마)는 원작의 의미·정서·구조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모방시를 소개한다. 한편, (나)는 유통 채널 전반에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디토 소비를 다루고 있으며, (다)는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맹목적으로 따라 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한다. (바)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서구의 외형만을 모방하여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양무운동의 역사를 소개한다. (395자)

[문제 2] (450자 내외)

<보기 1>에서 언급된 연암의 ‘법고창신’은 옛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 줄 알아야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두 제시문에 적용해 보면, (가)의 리히텐슈타인은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기존 작품에 팝아트적인 해석을 새롭게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조건 1을 충족한다. 또한 피카소가 지녔던 도전 정신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조건 2도 만족한다. 한편 <보기 2>의 AI는 창의적인 요소를 더하지 않고 지브리의 화풍 등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점에서 조건 1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지브리의 외형적 특징만을 재현할 뿐, 지브리가 추구해 온 자연과 인간의 조화, 내면적 성장과 같은 근본적 가치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건 2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히텐슈타인은 법고창신을 실천한 데 반해, AI는 법고창신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443자)

[문제 3] (500자 내외)

<보기 3>의 오마주란 예술가 혹은 예술 작품에 대한 의식적 찬사를 의미한다. 어떤 대상이 진정한 오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오마주는 작가가 의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오마주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창조적 변형을 수반한다. 셋째, 오마주는 기존 작품에 대한 존경을 토대로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케데헌>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사)에 따르면 <케데헌>의 제작진은 저고리 시스템즈와 김 시스템즈와 같은 실제 걸그룹을 치밀한 고증을 통해 의도적으로 등장시켰다. 그러면서도 과거 걸그룹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현대적 감각과 판타지적 스토리를 더해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 또한 감독이 밝혔듯이 <케데헌>에는 K팝의 뿌리였던 과거 걸그룹과 오늘날의 케이팝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해 볼 때 <케데헌>은 <보기 3>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오마주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495자)

■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 여섯 개의 제시문을 읽고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여섯 개의 제시문이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가), (라), (마)는 긍정적 모방으로, (나), (다), (바)는 부정적 모방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함 -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함	280
문제2	- <보기 1>에 드러난 연암 박지원의 ‘법고창신’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토대로 (가)의 리히텐슈타인과 <보기 2>의 AI가 만든 지브리 풍 이미지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가)의 리히텐슈타인이 피카소의 작품을 재현하면서도 도전 정신을 계승하고 창의적 해석을 덧붙인 것에 반해, AI가 만든 지브리 풍 이미지는 지브리스튜디오가 추구해 온 가치 구현 없이 외형적 모방에 그쳤음을 이해해야 함	320

문항	채점요소	배점
	- 따라서 (가)의 리히텐슈타인은 법고창신의 정신에 부합하는 반면, <보기 2>의 AI 이미지는 법고창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 기술할 수 있어야 함	
문제3	- <보기 3>의 영어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가 어떤 측면에서 ‘오마주’에 해당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함 - <보기 3>에서 제시한 ‘오마주’의 세 가지 요건(의도성, 변형, 존중)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 <보기 3>을 제시문 (사)에 적용하여, 케데헌이 오마주에 해당하는 세 가지 근거를 모두 찾아내야 함 - 이를 토대로 제시문 (사)가 오마주의 사례임을 추론해야 함	400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제시문 (가), (라), (마)를 ‘긍정적 모방’으로, 제시문 (나), (다), (바)를 ‘부정적 모방’으로 분류하여 기술한 경우 · (가)~(바)를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법 오류가 한두 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가)~(바)를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하지 못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과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등급	채점기준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 <보기 1>의 법고창신이 옛것을 통해 새것을 만들면서도 근본정신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임을 정확히 기술한 경우 - 요건2 : (가)의 리히텐슈타인은 피카소의 작품 <알제의 여인들>의 테마를 모방하였으나 피카소의 도전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창조적 해석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법고창신의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함을 기술한 경우 - 요건3 : <보기 2>에서 AI가 만든 지브리 풍 이미지는 원작의 외형적 모방에 그치고 지브리스튜디오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고창신의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음을 기술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pm 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2,3 중 1개 항목 누락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pm 10\%$를 벗어나고, $\pm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 B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항목 포함되거나 2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D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중 2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4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 $\pm 20\%$ 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
F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중 3개 항목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3]

등급	채점기준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 <보기 3>의 영어 지문에서 제시한 오마주의 세 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기술한 경우

등급		채점기준
		- 요건2 : <보기 3>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문 (사)에서 모두 기술한 경우 - 요건3 : 제시문 (사)가 오마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확히 추론하여 기술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2,3 중 1개 항목 누락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B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항목 포함되거나 2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중 2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4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중 3개 항목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일요일 T3 시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모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는 여러 개의 인공지능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동으로 작동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Multi-Agent System)’의 시대다.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환경 내 복수의 인공지능 모델이 특화된 기능별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자율적으로 협력해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 각각의 단일 모델이 동일한 학습을 반복하는 대신, 다수의 모델이 각각 학습한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문제 해결에 있어 효율성뿐 아니라 기억과 추론 능력을 비약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은 문제를 세분화하고 병렬로 해결하기 때문에 개별 모델이 서로를 교차·검증하며 오류를 감시할 수도 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업무 상황이나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는 인간의 협업 구조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 IBM,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재구성

[나]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 공급자가 오직 하나만 있는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고 한다.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통해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거나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만큼의 재화나 서비스를 충분히 소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생산 기술이나 특허권을 한 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철도, 가스, 전기 등 막대한 규모의 기반 투자가 필요한 경우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폐해를 줄이고자 한다.

— 고등학교 교과서, 『경제』 재구성

[다]

눈이 함빡 쌓인 흰 독길이다. 오! 이 독길……. 몇 사람이나 이 독길을 걸었을 거냐……. 흰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यो. 그 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射手)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흰 눈 뿐, 아무 것도 없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위에 제시된 글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사형 집행 전 삶의 마지막 한 시간 동안 주인공이 느끼는 실존주의적 고뇌를 다룬 소설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인칭 시점은 주어진 ‘나’가 작품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채 내포되어 있거나, 소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가 서술자가 되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다. 일인칭 시점은 ‘나’의 시점에서만 이야기를 서술하므로, 자연스럽게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에게 쉽게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서술의 시점이 모두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치거나 ‘나’를 제외한 나머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힘들다는 서술상의 제약이 있다.

— 오상원, 「유예」 및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재구성

[라]

현대 사회와 같은 매우 복잡한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특정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인지 과학은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는 분야이지만 인간의 두뇌는 한 가지 잣대로만 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심리학, 철학, 컴퓨터 공학, 기계 공학 같은 여러 학문들이 통섭하여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 통섭이 바람직한 미래 학문 형태로 거론되면서 과학과 인문 과학, 사회 과학의 다양한 지식을 두루 섭렵하여 활용하는 통섭형 인재가 주목받고 있다. 물론 통섭의 시대라고 해서 각자

의 정체성이 흐려지도록 마구 섞이라는 것은 아니다. 통섭의 핵심은 합병이 아니라 경계 완화이다.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있고, 자연 과학은 자연 과학대로 있되, 서로 무엇을 하는지 들여다보며 뭔가 가능한 것을 찾아가자는 것이다.

—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재구성

[마]

일본 도쿄공업대학의 오스미 요시노리 명예교수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1970년대 중반 세포 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가 포식(autophagy)’ 연구에 입문해 오랫동안 단일 연구에 매달린 결과다. 자가 포식은 세포 내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 등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비상시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기능으로, 퇴행성 신경질환, 감염병 치료나 노화 방지 등 질병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 오스미 교수는 1974년 생물학 박사 학위 취득 후 자가 포식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현미경으로 자가 포식 현상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고, 1992년에는 효모를 이용해 자가 포식을 촉발하는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 50년간 꾸준히 한 분야에 매진한 결과, 오스미 교수는 세포의 자가 포식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이끌어냈다.

— 〈조선일보〉 기사 재구성

[바]

입체파는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서양미술 사조이다. 입체파 화가 후안 그리스의 〈피카소 초상〉에는 그림 속 인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해체되어 있어, 마치 기하학적 형태들로 만든 사람 모형처럼 보인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형태들을 뒤죽박죽으로 섞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입체파의 그림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화면의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모습이 달라진다. 입체파 화가들은 위치를 바꾸어가며 여러 각도에서 관찰한 모습을 종합해서 한 화폭에 담는다. 입체파의 표현 방식은 고정된 위치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전통 원근법을 탈피하여 전후좌우 등의 여러 각도에서 본 형태와 색채들을 확장된 시선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사물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인식을 작품에 투영함으로써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 재구성

[문제 1]

지문 (가) ~ (바)를 ‘단일’과 ‘다중’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80점)

[문제 2]

아래 <보기>에 기초하여 제시문 (다)와 (바)의 시점을 구분하고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320점)

<보기>

시점이란 작품 속에서 관찰자의 위치를 조정하여 이야기나 대상의 전달 방식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술 작품은 그 시점에 따라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술가는 단일 시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표현하거나, 고정된 위치에서 벗어나 다시점으로도 현실 세계를 재현할 수 있다. 단일 시점의 경우 부분적인 면에 시선을 집중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상에 몰입하게 한다. 다시점의 경우에는 여러 각도에서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시선의 확장을 통해 감상자로 하여금 대상을 새롭게 보게 한다.

[문제 3]

<보기 1>에 제시된 SF(Science Fiction) 소설의 특징을 요약하고, <보기 1>의 관점에서 <보기 2>의 다빈치와 (마)의 오스미 중 누가 더 SF 소설 작가에 적합한지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보기 1>

Science fiction is a genre of literature that explores imagined or future scientific developments and their potential impact on humanity. It extrapolates* from today's technology to a future world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then reflects on how human lives play out in such a world. Science fiction differs from other genres in two key ways. First, science fiction combines science and the humanities to provide a unique perspective that encourages a critical view of the world we live in. Second, science fiction imagines and creates entirely new concepts—ones that do not exist in our current society—through the lens of scientific imagination. Kim Cho-yeop, a leading voice in South Korean science fiction, is known to base her works on diligent scientific research and critical contemplation** on humanity. Her works such as *If We Cannot Go at the Speed of Light* have been praised for rewriting scientific facts through literary metaphors and skillfully depicting the deficiencies of human existence.

*extrapolate from A to B: A를 기반으로 B를 추정하다

**contemplation: 고찰

<보기 2>

14~16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는 문학과 사상, 미술, 건축, 과학 등의 다방면에 걸친 문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활약한 인물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독 두드러진다. 미술가로서는 물론이고 과학자, 기술자, 사상가로서 상당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다빈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화라고 평가받는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해부학·원근법 등의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인체와 우주의 질서를 연결하는 르네상스 유럽의 종교 및 사상사의 큰 흐름인 ‘인간 소우주설’에 대한 탐구이기도 했다. 또한 다빈치는 인간 삶에 존재하는 것들을 인문학적이면서도 동시에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혁신가였다. 실제로 다빈치는 15세기에 핸들 각도를 미리 정해서 원하는 길로 이동할 수 있는 자동 이동 카트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에는 최초의 자율주행 기술 설계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재구성

■ 예시 답안

[문제 1] (400자 내외)

제시문을 ‘단일’과 ‘다중’이라는 두 핵심어로 분류하면, ‘단일’은 (나), (다), (마)이며, 다중은 (가), (라), (바)이다. ‘단일’을 나타내는 (나)는 공급자가 하나만 있는 시장인 독점 시장에 관한 내용이며, (다)는 오상원의 소설 「유예」에 나타난 일인칭 시점이다. (마)는 자가 포식 현상에 대한 단일 연구에 꾸준히 매진해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의 사례이다. 한편, ‘다중’을 나타내는 (가)는 복수의 인공지능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작동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소개하며, (라)는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는 통섭형 연구와 통섭형 인재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바)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표현 방식을 적용한 입체파 화가 후안 그리스의 작품 <피카소 초상>에 관한 내용이다. (402자)

[문제 2] (450자 내외)

<보기>를 토대로 (다)와 (바)의 시점을 구분하면, (다)는 오상원의 소설 <유예>에 등장하는 단일 시점이고, (바)는 입체파 화가 후안 그리스의 작품 <피카소 초상>에 제시된 다시점 표현 기법이다. 이를 기준으로 (다)와 (바)를 <보기>에 제시된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평가하면, 첫째, 표현 방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다)의 경우 ‘나’가 고정된 위치의 단일 시점에서 서술한 이야기가 펼쳐지므로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데 반해, (바)의 경우에는 위치를 바꾸어가며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둘째, 미적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는 (다)의 경우 부분적인 면에 시선을 집중하여 대상을 포착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몰입감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바)는 여러 각도에서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시선의 확장을 통해 감상자로 하여금 대상을 새롭게 보게 한다. (457자)

[문제 3] (500자 내외)

SF 소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문학과 과학을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한다. 둘째,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두 인물에 적용하면 <보기 2>의 다빈치가 SF 소설 작가에 더 적합한 인재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의 오스미는 오랫동안 한 분야의 연구에만 몰두해 그 분야에서 탁월하고 심화된 전문성을 보인 반면, 다빈치는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성찰이 동시에 어우러진 독특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또한 오스미는 세포의 자가 포식 현상을 통해 인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했으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은 아닌 반면, 다빈치는 과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SF 작가에 더 적합한 인재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94자)

■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 두 가지 상반된 핵심어인 ‘단일’과 ‘다중’이 언급되어야 함 - 여섯 개의 제시문이 ‘단일’과 ‘다중’이라는 기준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80
문제2	- 시점의 구분과 관련해 두 가지 유형이 언급되어야 함. (다)에서는 ‘단일 시점’이, (바)에서는 ‘다시점’이 언급되어야 함 - 시점 유형에 따라 차이점이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가 언급되어야 함 - 표현 방식의 측면과 관련해, (다)에서는 ‘부분’이, (바)에서는 ‘전체’가 언급되어야 함 - 미적 효과의 측면과 관련해, (다)에서는 ‘시선의 집중’과 ‘몰입’이, (바)에서는 ‘시선의 확장’과 ‘새롭게 보기’가 언급되어야 함	320
문제3	- SF 소설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언급해야 함. 하나는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것의 “창조”임 - 두 인물 중 SF 소설을 쓰기에 더 적합한 인물로 다빈치를 언급해야 함	400

문항	채점요소	배점
	- <보기 1>에서 제시한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의 기준이 (마)의 오스미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오랜 기간 ‘단일한 분야의 연구에만 몰두’하고 ‘심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보기 2>의 다빈치의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성찰이 어우러진 사고’를 했고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야 함 - <보기 1>에서 제시한 ‘새로운 것의 창조’의 기준이 (마)의 오스미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인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가능하게 했으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 <보기 2>의 다빈치의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한 혁신가’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야 함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제시문 (나), (다), (마)를 ‘단일’로, 제시문 (가), (라), (바)를 ‘다중’으로 분류한 경우 · (가)~(바)를 ‘단일’과 ‘다중’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한 경우 A+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법 오류가 한두 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가)~(바)를 ‘단일’과 ‘다중’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하지 못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단일’과 ‘다중’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과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등급	채점기준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 (다)와 (바)의 두 가지 시점 유형(단일 시점, 다시점)을 구분하여 기술 - 요건2 : <보기>를 바탕으로 차이점이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표현 방식, 미적 효과)을 기술 - 요건3 : 시점 유형별 표현 방식의 측면에서 ‘부분’(제시문 (다))을 기술 - 요건4 : 시점 유형별 표현 방식의 측면에서 ‘전체’(제시문 (바))를 기술 - 요건5 : 시점 유형별 미적 효과의 측면에서 ‘시선의 집중’과 ‘몰입’(제시문 (다))을 기술 - 요건6 : 시점 유형별 미적 효과의 측면에서 ‘시선의 확장’과 ‘새롭게 보기’(제시문 (바))를 기술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 2개 항목 누락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 3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 4개 항목 이상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3]

등급	채점기준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 <보기 1> SF 소설의 특징으로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을 기술 - 요건2 : <보기 1> SF 소설의 특징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의 창조’를 기술

등급	채점기준
	- 요건3 :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과 연계하여, (마)의 오스미는 적합하지 않고 <보기 2>의 다빈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술 - 요건4 :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과 연계하여, ‘단일한 분야의 연구에만 몰두,’ ‘심화된 전문성’(제시문 (마)의 오스미)을 기술 - 요건5 :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과 연계하여,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성찰이 어우러진 사고,’ ‘독특한 관점’(<보기 2>의 다빈치)을 기술 - 요건6 : 새로운 것의 창조와 연계하여, (마)의 오스미는 적합하지 않고 <보기 2>의 다빈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술 - 요건7 : 새로운 것의 창조와 연계하여, ‘인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새로운 것은 창조하지 않음’(제시문 (마)의 오스미)을 기술 - 요건8 : 새로운 것의 창조와 연계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한 혁신가’(<보기 2>의 다빈치)를 기술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7, 8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7, 8 중 2개 항목 누락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7, 8 중 3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7, 8 중 4개 항목 이상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2025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토요일 T1 시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기관을 형성하고 국가의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신분이나 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그 이후에는 점차 여러 국가에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여성 참정권 획득은 북유럽과 소비에트연방, 캐나다보다 늦었다.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인 에밀리 데이비슨이 1913년 6월 4일, 영국의 엡섬 더비 경마 대회에서 경주로에 뛰어들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는 당시 여성에 대한 차별 분위기를 쇄신하고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며칠 후 사망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18년 영국 여성들은 마침내 참정권을 획득하였다.

- 고등학교 교과서 『정치와 법』 재구성

[나]

산업화와 인구 증가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전 세계의 자원 소비량과 폐기물의 양이 급증하였다. 1956년 일본의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메틸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에게서 온몸이 마비되는 등의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를 미나마타병으로 명명하였다. 수은(Hg)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수은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만들어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의 무역, 수은 첨가 제품 및 제조 공정, 대기 중 배출, 수은 폐기물 처리까지 수은의 전 과정(life-cycle)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이 들어간 화장품 원료를 제외시키고 의료기관의 수은 체온계 및 수은 혈압계 사용을 금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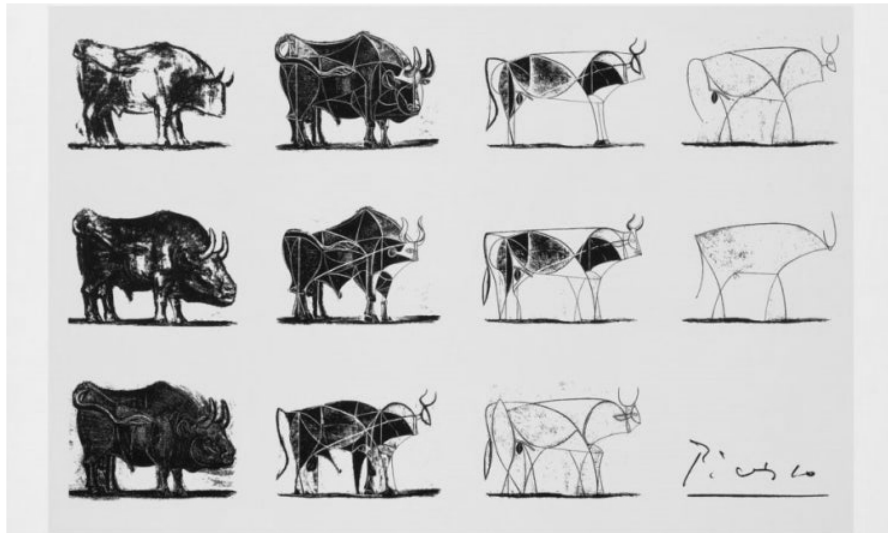
- 고등학교 교과서 『통합 사회』 및 환경부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 재구성

[다]

The abstraction process* in art involves changing or simplifying real-world images to highlight key elements like form or color. By eliminating unnecessary details, abstraction focuses on the core characteristics that define the subject, enhancing and emphasizing its true essence. For example, The Bull, a series of lithographs** by Pablo Picasso, illustrates this process, starting with detailed representations of a bull and gradually evolving into highly abstract, minimalist drawings that capture its essence in just a few strokes. This process demonstrates how abstraction excludes non-fundamental characteristics while maintaining its recognizable core.

* abstraction process: 추상화(抽象化)

** lithograph: 석판화



- 고등학교 교과서 『미술 창작』 재구성

[라]

기업은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수요자인 동시에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역할을 한다. 곧 기업은 단순한 생산자 또는 이윤 추구자가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경영학자인 에드워드 프리먼이 1984년에 제창한 ‘이해관계자 이론’에는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기존 이론가들은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이 직원, 고객, 공급업체, 지역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이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은 내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그치지 않고,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경제적 가치와 통합된다. 이를 반영하듯, 오늘날 한국과 EU(유럽연합) 국가들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의 의무 공시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고등학교 교과서 『경제』 및 <포춘코리아> 재구성

[마]

영국의 한 일간지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이후 최소 37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폴란드로 향했다. 폴란드 전체 인구 10%가량의 난민이 단시간에 유입된 셈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18개월간 기본적 복지 서비스와 노동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난민 수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폴란드 국민들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려고 애썼다. 국제사회는 폴란드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폴란드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난민 정책의 뚜렷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아서였다. 특히 중앙정부는 난민에 대한 교육,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사회통합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충실히 준비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난민을 사회 일원으로 흡수할 장기적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다. 폴란드의 소도시 브제지니의 레나타 코비에라 시장은 “난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경제> 재구성

[바]

뱀장어과 동물인 무태장어는 천연기념물 제258호로 지정해 보호를 받아 왔으나 현재는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다. 무태장어는 대한민국에서는 희귀종에 속해 남부지방, 제주도 등에서 극소수의 개체가 발견될 뿐이지만, 동남아 지역에서는 흔하게 발견되며, 특히 중국에서 양식을 많이 하는 어종이다. 무태장어를 식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후 양식용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법적으로 이를 거부하기가 어렵고, 사육을 허가하면 천연기념물이 식용으로 유통되어 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국민 정서상 천연기념물에 대한 가치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제주 천지연 폭포 지역만이 무태장어 서식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천연기념물 지정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무태장어는 2009년 6월 9일 천연기념물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무태장어>

- 국가유산청 ‘국가 유산 누리집’ 재구성

[문제 1] 지문 (가) ~ (바)를 ‘포함’과 ‘제외’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80점)

[문제 2] 아래 <보기 1>을 바탕으로 지문 (라)와 (마)를 비교·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320점)

<보기 1>

조직이나 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질 경우 창조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다양성 증가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집단 내 이질성 증가는 구성원 간의 신뢰를 낮추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양성이 사회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갈등을 잘 다루어야 한다. 어떤 경제학자는 아프리카의 낮은 교육 수준, 저조한 인프라 투자,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저성장이 상당 부분 너무 높은 민족 다양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사한 수준의 민족 다양성을 가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 이 차이는 ‘제도’와 ‘접촉’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폴 콜리어나 알베르토 알레시나 같은 경제학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해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적절히 조율될 때 다양성으로 인한 편익이 그 비용을 넘어서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딪히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뤄가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고 한다.

- <한겨레> 칼럼 재구성

[문제 3] [문제 2]의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서술한 후, 지문 (다)와 <보기 3>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보기 2>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인 달리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시민권 보호법과 지정 카스트 학대 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차별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가촉천민의 사회 진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인도 정부는 공무원 선발시험이나 대학

입학시험에서 일정 정원을 불가촉천민 내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불가촉천민의 존재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여 더 큰 차별이나 미움의 대상이 되게 만들기도 했다.

-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및 <유엔 크로니클 코리아> 재구성

<보기 3>

병*을 얻어 바깥세상으로부터 이 섬으로 쫓겨 들어왔고, 한번 섬으로 들어온 이들에겐 병원 당국에서 다시 섬을 나갈 용기가 나지 않도록 바깥세상에 대한 끝없는 원망과 저주와 두려움을 길러줍니다.

(중략)

그리하여 이 바깥세상을 빌려 길러 놓은 원망과 저주와 공포 때문에 이들은 감히 다시 섬을 빠져나갈 생각조차 해볼 수 없는 철저한 ‘환자’로 길들여져 버립니다. 병원이 이들에게 순순히 섬을 나가도 좋다 말할 때도 이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환자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그 병원이 이들에게 익혀준 철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섬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그 저주스런 땅으로의 두려운 추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가끔은 그 자신의 ‘환자’에서 해방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근본적으로는 ‘환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며 환자로서의 생존 양식과 일반의 그것을 구별 짓기에 지쳐버린 자들은 좋은 환자로서의 자신의 특수한 처지를 벗어나려고 보다 깊은 생존의 충동에 따라 섬을 벗어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 한센병. ‘나병(문둥병)’을 달리 이르는 말로 나병균을 발견한 한센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중에서

■ 예시 답안

[문제 1]

(가), (라), (마)는 ‘포함’에 해당된다. (가)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면서 과거에 남성에게만 참여가 허락되던 정치영역에 여성을 포함하는 사례이다. (라)는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반영하던 입장에서 직원,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는 사례이다. (마)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복지서비스와 노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포함하는 사례이다. (나), (다), (바)는 제외에 해당한다. (나)는 미나마타병 유발 물질인 수은을 제품의 원료에서 점차 제외시킨 사례에 해당한다. (다)는 추상화 과정에서 본질적인 것만 남기고 디테일을 점진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바)는 천연기념물로 보호했던 무태장어가 여러 문제로 천연기념물에서 제외된 사례에 해당한다. (399자)

[문제 2]

<보기 1>은 조직이나 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지면 창조적 발전에 이른다는 학계의 중론과 달리, 다양성 증가에 수반되는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적절한 제도와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다양성이 증가하면 부정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기 1>을 토대로 (라)와 (마)를 대조·평가하면, (라)는 기업이 주주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직원,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ESG 관련 정보 의무 공시 등의 제도적 장치들을 함께 마련해서 긍정적 결과에 이른 사례이다. 반면 (마)의 경우는 폴란드에서 대규모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난민을 접촉하고 받아들인 폴란드 시민들의 노력에 반해, 정부는 난민들이 폴란드 사회에 실질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부정적 결과에 이른 사례이다. (451자)

[문제 3]

<보기 1>에서는 조직의 다양성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도’와 ‘접촉’을 언급한다. <보기 2>는 인도의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차별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접촉이 없이 제도만으로는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지문 (다)는 피카소의 <황소>를 예로 들어 비본질적인 것들을 지워나가면서 몇 개의 선으로 황소를 표현하는 추상화 과정을 보여준다. <보기 3>은 나병 환자들이, 환자로 길들여진 섬에서 ‘탈출’함으로써 ‘환자’가 아닌 ‘인간’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인도의 불가촉천민 차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추론하자면, 차별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사회 진출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추상화 과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만을 남기듯, 인간 존재의 본질적 측면에 집중하고, 삶과 존재의 기본적 충동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501자)

■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 분류의 핵심어인 “포함”과 “제외”가 언급되어야 함 • 여섯 개의 제시문들이 “포함”과 “제외”란 기준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80
문제2	• <보기 1>에서 다양성 증대가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제도’와 ‘접촉’이 언급되어야 함 • (라)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확대하여 얻은 긍정적 효과가 언급되어야 함 • (마)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가 언급되어야 함	320
문제3	• <보기 1>에서 제도 마련과 접촉(소통) 증대의 필요성이 언급되어야 함 • <보기 2>에서 인도의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오히려 차별을 강화시키는 점을 언급해야 함 • (다)에서 추상화 작업의 핵심적 특징, 즉 비본질적인 것들을 지워나가면서 결국 본질적인 것만을 남기는 작업이 언급되어야 함 • <보기 3>에서 나병 환자들이, 환자로 길들여진 섬에서 ‘탈출’함으로써 ‘환자’가 아닌 ‘인간’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언급되어야 함 • <보기 2>의 문제, 즉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인간 존재로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야 함	400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제시문 (가), (라), (마)를 ‘포함’으로, 제시문 (나), (다), (바)를 ‘제외’로 분류한 경우 · (가)~(바)를 ‘포함’과 ‘제외’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A+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A-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법 오류가 한두 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가)~(바)를 ‘포함’과 ‘제외’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하지 못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포함’과 ‘제외’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과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 <보기 1>에서 다양성 증대가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제도’와 ‘접촉’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기술한 경우 - 요건2 : (라)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확대하여 얻은 긍정적 효과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기술한 경우 - 요건3 : (마)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기술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2,3 중 1개 항목 누락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B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항목 포함되거나 2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등급	[채점기준]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중 2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4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pm 20\%$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중 3개 항목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3]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요건1 : <보기 1>에서 제도 마련과 접촉(소통) 증대의 필요성이 언급된 경우 요건2 : <보기 2>에서 인도의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오히려 차별을 강화시키는 점이 언급된 경우 요건3 : (다)에서 추상화 작업의 핵심적 특징, 즉 비본질적인 것들을 지워나가면서 결국 본질적인 것만을 남기는 작업임이 언급된 경우 요건4 : <보기 3>에서 바깥 세계로부터 격리된 나병 환자들이, 환자로 길들여진 섬에서 ‘탈출’함으로써 ‘환자’가 아닌 ‘인간’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언급된 경우 요건5 : <보기 2>의 문제상황은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로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pm 10\%$ 이내로 작성됨
	A0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pm 10\%$를 벗어나고, $\pm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중 2개 항목 누락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중 3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pm 20\%$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중 4개 항목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일요일 T3 시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농산물 직거래는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소비자와 거래할 때 중간 상인이 개입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형태를 말한다. 중간 상인의 유무가 직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택배나 운송 회사 등을 통한 거래 역시 중간 상인이 없다면 직거래에 포함된다. 경제 구조 및 유통 산업이 고도화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직거래가 일반적인 판매 형태였다. 지금도 도롯가나 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도 농업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한 장소 또는 시설이다. 직매장 인근의 농업인들이 농산물의 포장, 가격결정, 매장 내 진열, 재고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고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형태의 직거래 유형이다.

-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 지리』 재구성

[나]

우리는 일상에서 “전염됐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여기서 ‘전염(傳染)’의 개념은 정확히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감염과 대비하여 전염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염은 특정 병원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전염은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이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아직 감염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병원체를 옮기는 것을 뜻한다. 가령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감기를 옮기거나 물, 공기 등을 통해 병원체를 옮기는 것이다. ‘전할 전(傳)’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더욱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전염이란 단어는 사람이 무리 지어 살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혼자서 무인도에 산다면 전염이 되거나 전염을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 고등학교 교과서, 『생명과학 1』 및 한동하, 「감염과 전염…」 재구성

[다]

최근 중·장년의 최대 공포는 ‘꼰대 취급’이다. 미움받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지라 ‘꼰대 되지 않는 법’을 안내하는 글은 늘 각광받는다. 명절을 앞두고 “조카에게 연봉 묻지 마세요”, “취업 여부 참견하지 마세요” 등의 대화법을 다룬 뉴스가 비중 있게 다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뜰이나 직언, 직설이 무례로 여겨져 온 동양 문화에서, 요즘처럼 ‘꼰대 척결’ 여론이 비등한 시절에 타인에게 괜한 충고를 했다간 ‘꼰대’ 소리 듣기 십상이니 침묵은 꽤 편리한 안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황이 악화하는데도 ‘묵언수행’을 고집할 경우 되레 자신의 평판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도대체 말해도 난리, 안 해도 난리”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컨설팅기업 ‘인터랙티브’의 트레이너 앨런 파머는 정중하되 담백하게 말하는 화법, ‘린 토크(lean talk)’를 익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아시아인들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순간에도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예’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의 있으면서도 직설적인 화법이 가장 효과적인 대화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말을 뱅뱅 돌리거나 침묵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절망하고, 이 절망 때문에 공손한 태도까지 잃어버린 뒤 냉정하고 잔인한 말을 해버리고 만다”라고 지적한다.

- 김혜영, 「꼰대 될까 봐 묵언수행?…」 재구성

[라]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정치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대의 민주제에서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등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한 예로 영국의 경우 외교 정책을 내각에 맡기지 않고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했다. 2015년 총선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재집권을 위해 영국이 유럽 연합에 남을지, 탈퇴할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공약을 하였고, 선거에서 승리하자 2016년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탈퇴를 선택한 투표자는 51.9%, 잔류를 선택한 투표자는 48.1%였다. 캐머런 총리 자신은 영국이 유럽 연합에 남기를 원하였으나, 투표자의 과반이 탈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결국 영국은 유럽 공동체에 합류한 지 47년 만인 2020년 2월, 이 기구에서 탈퇴하였다.

- 고등학교 교과서, 『정치와 법』 재구성

[마]

김수영(1921~1968)은 시적 언어의 완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그 언어의 사회·역사적 의미에도 집중한 시인이었다. 그는 모더니즘 시에서 출발하여 현실 비판 의식과 저항 정신을 담은 참여시를 썼다. 그의 대표작 「눈」에서는 ‘눈’, ‘기침’ 등을 상징적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처럼 소박한 일상의 언어를 시에 가져옴으로써 시의 새로움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는,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며, ‘기침’은 불순하고 더러운 것을 뱉어내는 정화(淨化) 행위를 상징한다. 김수영의 새로운 시적 언어는 현실을 깨닫게 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요청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김수영의 「눈」은 1950년대 한국의 부패한 정치 상황을 암시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통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등 재구성

[바]

<게르니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스페인 게르니카를 폭격하는 참상을 그려낸 피카소의 작품으로서, 20세기에 제작된 미술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반전(反戰) 회화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그림은 과열된 전구, 말의 머리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황소와 두 팔을 벌린 여인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은 여러 상징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중앙부에는 창에 복부를 관통당한 채 고통스러워하는 말이 있는데, 이는 스페인 공화국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그림 왼쪽에는 황소 한 마리가 있는데, 이는 압제자인 프랑코를 표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황소가 스페인의 상징이자 피카소의 자아를 대변한다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갱생과 회복을 추구하는 스페인의 불굴의 의지로도 읽힌다. 이 그림은 전쟁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전쟁 실사나 다큐멘터리와 달리 전쟁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담아냄으로써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주관적 해석을 낳았다.



- 고등학교 교과서, 『미술』 및 『생활과 윤리』 등 재구성

[사]

1936년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사진이 있다. 바로 로버트 카파(1913~1954)가 촬영한 <공화파 병사의 죽음>이다. 이 사진에는 돌격하기 위해 참호에서 뛰쳐나온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즉사하는 순간이 담겨 있다. 이 병사는 마치 순교자처럼 팔을 펴고 있으며, 약간 찡그린 듯하나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황량한 풀숲 위로 쓰러지고 있다. 줌렌즈 없이 표준렌즈로 촬영된 이 사진은 실존 인물이 죽어가는 찰나를 직접 목격한 듯이 매우 생생하게 재현했는데, 이런 사실적이고도 직접적인 묘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생생한 표현으로 인해 관객은 전쟁의 잔혹함을 즉각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진은 전장에서의 극적인 순간을 포착한 현장성 덕분에 지난 세기 가장 뛰어난 전쟁 기록 사진으로 손꼽힌다.



- 노형석, 「‘카파이즘’을 목격하라」 등 재구성

[문제 1] (가) ~ (바)를 ‘직접’과 ‘간접’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80점)

[문제 2]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 측면에서 (바)와 (사)의 밑줄 친 작품의 공통점을 찾고, 아래 <보기>에 기초하여 두 작품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450자 내외, 320점)

<보기>

예술은 작가가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작가가 작품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과 관객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메시지의 표현 방식 측면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직접적 방식과 비유와 상징 등을 이용한 간접적 방식이 있다. 둘째, 표현 방식에 따라 메시지를 접한 관객의 반응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직접적 방식의 경우 관객들은 객관적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수용하는 반면, 간접적 방식의 경우 관객들은 작가의 메시지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상상한다.

[문제 3] <보기 1>을 기초로 (마)의 김수영과 <보기 2>의 한강의 작품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공통된 이유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보기 1>

논어(論語)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은 그중 두 가지를 보여준다.

(1) 夫子至於是邦也 必聞其政 求之與 抑與之與 夫子溫良恭儉讓以得之 夫子之求之也 其諸異乎人之求之與 (선생님(공자)께서는 어디를 가시든 그 나라의 정치를 들으셨는데,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선생님께 들려드린 것입니까? 선생님께서는 온화함, 선량함, 공경, 절약, 겸양으로써 그것을 얻은 것이니 선생님께서 그것을 구한 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구한 것과 다르겠지요.)

풀이: 공자가 “어디를 가든 정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가 현실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자에 따르면, 정치는 모든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사회 공동의 사안이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라면 인간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의 생각을 밝힐 줄 알아야 한다.

(2) 子曰 君子不器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그릇에 갇히지 않는다.”)

풀이: 공자가 말하는 ‘기(器)’는 사람의 능력 또는 생각을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릇에 갇히지 않는다’ 함은 그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 또는 생각의 한계를 확장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군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고함으로써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기 2>

Han Kang, a South Korean novelist, has become the first Asian woman to wi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The Swedish Academy* praised Han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invisible sets of rules and, in each of her works,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The academy also noted that “she has a unique awareness of the connections between body and soul, the living and the dead, and in her poetic and experimental style has become an innovator in contemporary prose.”

* The Swedish Academy: 스웨덴 한림원

** prose: 산문

■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을 ‘직접’과 ‘간접’이라는 두 핵심어로 분류하면, 직접은 (가), (다), (라)이며, 간접은 (나), (마), (바)이다. 직접을 나타내는 (가)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 상인이 개입하지 않는 직접 거래 형태인 농산물 직거래를 설명한다. (다)는 정중하고 담백하게 말하는 직설 화법을 소개하며, (라)는 영국이 외교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직접 민주 정치 요소인 국민투표를 적용한 사례이다. 한편, 간접을 나타내는 (나)는 병원체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 아닌, 매개체를 통해 병원체가 옮겨지는 전염에 관한 내용이다. (마)는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암시한 김수영의 「눈」을 설명한다. (바)는 황소와 말 등 상징적인 요소로 전쟁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담아낸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소개한다. (402자)

[문제 2]

(바)는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사)는 카파의 <공화파 병사의 죽음>을 소개한다. 이들 작품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우선,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 측면에서 보면, 두 작품의 공통점은 전쟁의 참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작품은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과 관객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첫째, 메시지 표현 방식 측면에서 보면, (바)의 그림은 말, 황소와 같은 상징적 요소를 통해 전쟁의 잔혹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반면, (사)의 사진은 전장에서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즉사하는 순간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관객의 반응에 차이가 있다. (바)의 그림은 관객들이 상징적 요소로 표현된 메시지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반면, (사)의 사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전쟁의 잔혹함을 즉각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한다. (445자)

[문제 3]

논어는 사회구성원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을 소개한다. 첫째, “공자는 어디를 가든 정치를 들었다”는 말은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군자는 그릇에 갇히지 않는다”는 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덕목에 기초해 김수영과 한강의 작품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공통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두 작가의 작품은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 김수영의 작품은 당시 한국의 부패한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을 통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둘째, 두 작가 모두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성을 추구했다. 김수영은 소박한 일상의 언어를 시에 가져오는 것으로 시의 새로움을 모색했으며, 한강은 육체와 영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를 사용했다. (504자)

참고: <보기 2>의 한국어 번역

한강은 아시아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강렬한 시적 산문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한강은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며, 시적이고도 실험적인 문체를 통해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 신문기사(2024. 10. 11.) 재구성

■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 두 가지 상반된 핵심어인 ‘직접’과 ‘간접’이 언급되어야 함 • 여섯 개의 제시문이 ‘직접’과 ‘간접’이라는 기준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80
문제2	• (바)와 (사)의 공통점으로 전쟁의 잔혹함이 언급되어야 함 • (바)와 (사)의 차이점으로 두 가지가 언급되어야 함. 하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관객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 •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해, (바)에서는 ‘간접’과 ‘상징’을, (사)에서는 ‘직접’과 ‘묘사’를 언급해야 함 • 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관련해, (바)에서는 ‘상상’과 ‘주관적 해석’을, (사)에서는 ‘객관적 인지’를 언급해야 함	320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3	• 논어에서 제시하는 사회구성원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을 언급해야 함. 하나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 사고’임 • 논어에서 제시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마)에서는 한국의 부패한 정치 상황과, <보기 2>에서는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다룬 것과 연결해야 함 • 논어에서 제시한 ‘창의적 사고’를 (마)에서는 ‘일상의 언어’를 시에 가져옴으로써 ‘시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과, <보기 2>에서는 ‘독특한 인식’,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와 연결해야 함	400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제시문 (가), (다), (라)를 ‘직접’으로, 제시문 (나), (마), (바)를 ‘간접’으로 분류하여 기술한 경우 • 각 제시문의 요약에서 아래 핵심어를 포함하여 기술된 경우 (가) ‘중간자가 없는 직접 거래’ (나) ‘매개체를 통한 전염’ (다) ‘직설 화법’ (라) ‘국민 투표제’와 ‘직접 민주 정치 요소’ (마) ‘상징’, ‘암시’, ‘간접’ (바) ‘상징’, ‘간접’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법 오류가 한두 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지만 위에서 제시한 핵심어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직접’과 ‘간접’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과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바)와 (사)의 공통점으로, ‘메시지 측면에서 전쟁의 잔혹함’을 기술한 경우 - 요건2: 차이점에서 (바)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간접’과 ‘상징’으로 기술한 경우 - 요건3: 차이점에서 (사)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직접’과 ‘묘사’로 기술한 경우 - 요건4: 차이점에서 (바)의 관객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주관적 해석’으로 기술한 경우 - 요건5: 차이점에서 (사)의 관객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객관적 인지’로 기술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2,3,4,5 중 1개 항목 누락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중 2개 항목 누락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중 3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중 4개 항목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3]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보기 1> 논어의 ‘공자는 어디를 가든 정치를 들었다’와 연계하여, 사회구성원이 가져야 할 덕목인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술한 경우 - 요건2: <보기 1> 논어의 ‘군자는 그릇에 갇히지 않는다’와 연계하여, 사회구성원이 가져야 할 덕목인 ‘창의적 사고’를 기술한 경우 - 요건3: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계하여, (마)의 한국의 정치 상황을 서술한 경우 - 요건4: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계하여, <보기 2>의 역사적 트라우마, 보이지 않는 규칙, 인간 삶의 연약함을 서술한 경우 - 요건5: 창의적 사고와 연계하여, (마)의 ‘일상의 언어’, ‘시의 새로움’을 서술한 경우 - 요건6: 창의적 사고와 연계하여, <보기 2>의 ‘독특한 인식’,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를 서술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등급		[채점기준]
B	B+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pm 10\%$를 벗어나고, $\pm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내용 면에서 B0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에서 두 가지가 누락된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pm 20\%$를 벗어나고, 250자 이상이 작성됨
D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누락된 경우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2024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T1 시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의사들의 성과 동기를 높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이에 A국의 한 의료 연구기관은 자국 민간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야 성과급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과급제 도입이 의사의 진료량을 도입 이전 대비 5~6배 증가시키고, 의사들로 하여금 수익성이 높은 검사나 치료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과잉 진료 현상도 나타나는데, 병원 간 경쟁이 심할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병원 인력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할 일은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은상준, 「의사 성과급: 수익에서 의료의 질로」 재구성

[나]

인류는 약 6천 종의 식물을 먹으며 생존해 왔다. 식물은 특정한 지역의 기후와 토양, 물, 고도에 맞춰 진화했고, 사람들은 그런 식물들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독일 남부 알프스 산지에서는 토양이 척박해 다른 식물은 못 자라지만, 알브린제(알프스 렌틸)라고 알려진 재래 품종 콩과 작물은 잘 자랐고,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렌틸콩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재래종보다 생산성이 좋은 벼와 밀 품종이 개발되고, '소품종 대량생산'의 농업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밀과 벼, 옥수수 단 3종에만 전체 칼로리의 50퍼센트를 의존하게 됐다. 알브린제 품종의 렌틸콩 역시 소출이 많은 렌틸 품종이 개발되면서 경쟁력을 잃고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음식의 균질화'는 곡물뿐 아니라 육류, 과일, 치즈 등 다양한 음식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돼지고기 생산은 단 한 품종, '라지화이트'라는 돼지 유전자를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라지화이트 품종 돼지는 다른 품종과 달리 몸체가 길고 체중이 빨리 불어난다. 바나나도 1,500가지 이상의 품종이 있지만 '캐번디시'라는 품종만 거래되고 있다. 이렇듯 무역, 기술, 산업 분야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결과로 '생물 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가축 전염병, 바나나 역병 등의 충격이 거대한 식량 재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게 된 것이다.

- 양선아, 「음식이 '멸종'하고 있다」 재구성

[다]

2000년 이후 패스트패션(fast fashion) 기업들은 크게 유행성, 모방성, 일회성, 휴대성, 변형성, 통합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인들의 욕구에 대응하여 패스트패션 산업을 비약적으로 확장시켰다. 속도감에 적응된 현대인들은 모든 현상의 유행성에 관심을 가지고 모방의 소비 패턴을 보였다. 또한 일시적이고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사회는 일회적으로 구매하고 교체하는 행동 습관을 낳게 했고, 이동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의 유목성은 휴대하기 편한 복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만들었다. 패스트패션 기업들은 변화 지향적 사회, 급변하는 생활 방식을 반영하여 다양한 변형 상품을 빠르게 생산하고 유통했다. 여기에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이 공존하는 흐름은 문화의 융합을 통해 패스트패션의 글로벌 확산을 가져왔다. 패스트패션 기업은 이와 같이 현대 사회의 유행과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만족도를 높였다.

- 노주현, 「패스트패션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 재구성

[라]

세계 주요국들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한다는 파리협정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었고,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는 지구 온난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지구 온난화 1.5°C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45% 감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결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탈동조화(decoupling)에 진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와 중국 역시 배출량의 증가세가 완만해진 상태이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들이 이미 다수 국가에서 설정되고 법상으로도 명문화되어 국가 단위에서의 목표 설정 단계는 지난 상황이다. 주요국들은 매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성실한 이행과 이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전은진, 『탄소중립...』 재구성

[마]

19세기 프랑스 화가들은 미술 단체의 정기 관람회인 살롱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곤 했다. 당시 살롱전의 심사위원들은 곱고 예쁜 그림, 교훈적인 그림만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과 개성이 드러난 그림으로 승부하려는 신진 화가들은 이름을 알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프랑스의 몇몇 신진 화가들이 독자적인 전시회를 기획하였고, 모네는 세잔, 부댕, 드가, 르누아르, 피사로 등과 함께 ‘무명협동협회’를 결성하여, 작품 165여 점을 전시하였다. 모네의 그림 〈인상, 해돋이〉를 본 평론가 르루아가 조롱의 의도를 담아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라는 글을 쓰면서 곧 이들의 화풍을 인상주의라 부르게 되었다. 이들의 그림과 전시회는 처음에 관객과 평론가 모두에게서 외면을 받았으나 점차 큰 화제가 됐다. 한순간의 인상을 담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붓질을 하고, 구체적인 형상은 과감히 생략하면서까지 느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인상주의 화풍은 자연의 변화무쌍한 힘을 선으로 묘사하는 대신 색조로 기록한 것이다. 이로써 인상주의는 현대미술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기념비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 김광우, 『순간의 빛을 영원에 담은 모네』 재구성

[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중략)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워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날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중에서

[사]

현대 사회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발달할수록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 계속 커져서 장기적으로는 인간에게 혜택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인간이 AI에 의존하는 경향은 인간의 사고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기술 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 영상, 음향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문제도 심화할 수 있다. AI 기술 연구와 활용에 필요한 반도체 제작, 전력 생산 과정에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환경 파괴가 나타났으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기술 발달의 욕구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도 AI의 활용이나 AI 그 자체가 인간에게 위협으로 작용하는 기술 연구를 통제하는 방안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AI를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수준에는 이미 도달했으며, AI가 스스로의 권력을 추구하거나 인간이 동의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을 기만할 정도로 고도화되는 수준도 머지않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의 작용이 인간의 의도,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미래 세대에게까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우려들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CAIS, 「AI 위협에 대한 성명」 재구성

[문제 1] (가) ~ (바)는 어떤 ‘변화’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가) ~ (바)를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40점)

[문제 2] 〈보기 1〉을 바탕으로 (다)와 (라)를 대조·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240점)

〈보기 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의 욕구와 편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생태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윤리 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환경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일회적으로 소비한 후 폐기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소비를 생활화해야 한다. 둘째,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확대하고, 셋째, 국가 간 협력 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문제 3] 〈보기 3〉의 요나스(Jonas)의 관점에서 (사)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 3〉의 벤담의 관점에서 〈보기 2〉의 밑줄 친 주장이 왜 타당한지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320점)

〈보기 2〉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일상에서의 편의성, 업무 효율성, 산업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AI 개발 및 규제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A는 AI의 부작용과 관련된 최근의 우려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들의 AI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보기 3〉

(A) Hans Jonas, a distinguished German-born philosopher, presents three compelling reasons why ethical responsibility is essential in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The first reason is the ambiguity of outcomes. This implies that even when science and technology are used for

good purposes, they may contain elements that could have potentially harmful effects in the long term. The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evil does not solely depend on intentions or goals; even technologies employed for legal aims can also pose potential threats. The second reason is the compulsion to apply new technologies. As science and technology open up new opportunities, the demand for their application arises, resulting in an uncontrollable desire for more. The third reason concerns the extensive spatio-temporal* impact of technologies. Their reach extends beyond immediate geographical limits, potentially affecting many generations to come. The power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is inescapable; the actions we undertake today for our own benefit can have significant consequences in other places and for our descendants.

*spatio-temporal: 시공간의

(B) 벤담(J. Bentham)은 행복을 쾌락으로 보았다. 쾌락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옳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그르다고 주장하였다. 벤담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옳은 행위란 이해 당사자들을 공평하게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이다. 즉, 하나의 행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행복을 얻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한다.

■ 예시 답안

[문제 1]

변화의 결과에 따라 (가)~(바)를 분류하면 (가), (나), (바)는 부정적, (다), (라), (마)는 긍정적 결과로 나눌 수 있다. (가)에서 의사 성과급 제도 도입은 의료비용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지게 했고, (나)에서 품종 개발, 소품종 대량 생산에 의한 음식의 균질화는 생물 다양성을 현저히 감소하게 했다. (바)에서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생긴 것은 성북동 비둘기가 사랑과 평화까지 낳지 못하고 쫓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다)에서 패스트패션 산업의 확산은 소비자들의 패션 욕구를 충족시켰고, (라)에서 세계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노력 강화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한 화풍의 변화는 현대 미술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405자)

[문제 2]

〈보기 1〉은 지속가능발전이 성장과 개발에 있어 미래 세대와 생태계에 대한 책임감 있는 윤리 의식을 강조함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다)와 (라)는 대조를 보인다. (다)에서 패스트패션 산업은 현대인들의 패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패션 산업은 일회적 소비와 폐기, 다양한 상품들의 빠른 생산과 소비를 부추기면서, 환경과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책임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라)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결과,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를 이루었고, 탄소중립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456자)

[문제 3]

요나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과학 기술에서 윤리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사)에 적용하면, 첫째, AI가 현대 사회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모호하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그 적용의 강제성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AI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세대에게까지 고통을 줄 수 있어 그 영향이 시공간적으로 광역적이다. 이를 벤담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벤담은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그 행위가 가져다줄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AI가 현재 인류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가진 우려들로 인해 인간에게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AI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AI 기술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국제기구 A의 선언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509자)

■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 여섯 개의 제시문들이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로 분류되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40
문제2	- 책임감 있는 윤리 의식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언급되어야 함 (다)에서 패스트패션 산업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함 (라)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책임감 있는 윤리 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해야 함	240
문제3	- 요나스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과학 기술에서 윤리적 책임을 주장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함 - 요나스의 세 가지 이유를 (사)에 적용하여 AI 기술 개발이 결과 모호성, 적용의 강제성, 적용의 시공간적 광역성을 가짐을 기술해야 함 〈보기 3〉에서 행위 결정 시, 행위가 가져올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야 한다는 벤담의 주장이 언급되어야 함 - 벤담의 관점에서 AI가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인간에게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AI 기술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국제기구 A의 선언이 타당함을 언급해야 함	320

[문제 1]

등급		[채점 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제시문 (다), (라), (마)를 ‘긍정적 변화’로, 제시문 (가), (나), (바)를 ‘부정적 변화’로 분류한 경우 • 각 제시문의 요약에서 아래 핵심어/유사어를 포함하여 기술된 경우 (가) 의사 성과급 제도의 도입과 의료비용 상승, 의료서비스 질 하락 (나) 소품종 대량생산, 음식의 균질화로 인한 생물 다양성 하락 (다) 패스트패션 산업의 확장과 소비자 욕구 충족 (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국제적 노력과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 (마)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한 화풍의 변화와 현대 미술의 탄생 (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생겨 비둘기가 쫓기게 된 결과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법 오류가 한두 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B+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지만 위에서 제시한 핵심어/유사어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과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2]

등급		[채점 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보기 1> 을 이용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 요건2: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의 패스트패션 산업의 문제점을 기술한 경우 - 요건3: (라)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을 기술한 경우 - 요건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

등급		[채점 기준]
	A-	- 내용 면에서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 - 주어진 자수±1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B+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2,3,4 중 1개 항목 누락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 다음 중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중 2개 항목 누락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중 3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중 4개 항목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3]

등급		[채점 기준]
A	A+	- 내용 측면에서 아래 내용을 명확히 전달한 경우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 〈보기 3〉을 이용해 요나스의 주장을 설명한 경우 - 요건2 :요나스의 첫 번째 주장을 AI 산업에 적용해 결과의 모호성을 설명한 경우 - 요건3 :요나스의 두 번째 주장을 AI 산업에 적용해 적용의 강제성을 설명한 경우 - 요건4 :요나스의 세 번째 주장을 AI 산업에 적용해 적용의 시공간적 광역성을 설명한 경우 - 요건5 :벤담의 주장(행위 결정 시, 쾌락과 고통을 계산해야 한다)을 설명한 경우 - 요건6 :벤담의 주장에 입각해 AI 기술 개발의 감정적 중단 선언이 타당함을 기술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내용 면에서 A+ 기준을 충족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
	A-	- 내용 면에서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 - 주어진 자수 ±10%의 오차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B+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6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등급		[채점 기준]
	B-	• 내용 면에서 B0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6 중에서 두 가지가 누락된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50자 이상이 작성됨
	D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6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누락된 경우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T3 시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르쿠스: 법은 하나요, 그것으로 인간 사회가 결속되어 있다네. 유일한 법률이 그 법을 제정했으니, 그것은 바른 이성, 명령하고 금지하는 이성일세.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인간이네, 그 법을 문자화하든 결코 문자화하는 일이 없든 예외 없이 말일세. 만일 정의(正義)라는 것이 인민들이 문서화한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복종이라고 한다면, 또는 혹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을 효용에 의거해서 측정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법률을 소홀히 대할 것이고, 가능하기만 하다면 법률을 위반할 것이네. 그러면서 그 행동이 자기한테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여길 것이네. 그러면 정의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결과가 오네. 자연 본성에서 우러나 인간을 사랑하고 싶은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이 모든 것이 생겨나며, 이것이 법의 토대일세.

- 키케로, 『법률론』 재구성

[나]

독일 극작계의 거장 **브레히트**는 관객의 몰입을 차단하고 끊임없이 관객에게 이성을 찾으라고 다그치는 연극을 창시했다. 재미보다는 교훈, 감동보다는 비판적 거리두기가 브레히트 연극의 주된 미덕이다. 현실에 마주하는 방법과 자세에 혁신을 가져온 그의 새로운 시도는 2천 년을 이어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 연극론의 틀을 깨는 전위적인 것이었다. 그의 연극에서는 조명 장치가 노출되고, 배우가 무대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관객을 상대로 토론을 벌인다. 무대의 전환과정도 객석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관객의 몰입을 최대한 억제한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는 ‘소외효과’ 또는 ‘낯설게 하기’라고 불린다.

- 이상일, 『브레히트, 서사극, 낯설게 하기 수법』 재구성

[다]

정약용은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으로 청렴을 제시하였다. 자기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해 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익을 위해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말과 행동을 쉽게 바꿀 경우 사람들 간의 믿음이 사라질 것이다. 직업인의 말과 행동이 도덕적으로 일치할 때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기적인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듯이, 직업 생활에서도 직업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청렴하지 못할 때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업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 추구가 도덕적 양심과 사회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반성해 보고, 직업 생활에서 반드시 청렴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 재구성

[라]



데페이즈망(depaysment)은 초현실주의 회화 기법이다. **마그리트**의 ‘골콘다’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기법은 객관적인 묘사를 통해 현실의 객체와 사건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기존의 사실주의적 표현을 거부한다. 데페이즈망은 특정한 대상을 상식에서 벗어난 이질적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한다. 이는 통념에 맞지 않는 설정으로 예술적인 상상력을 자극해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너머의 세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표현법이다. 푸른 하늘과 집들을 배경으로 검은 옷과 모자를 쓴 남자들이 부유하는 모습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가는 이 그림에서 중력을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현실의 법칙을 벗어나 있지만, 그 비상식적 조합이 볼수록 매력적이다. 기이하고 낯설다는 느낌이 보는 이에게 숨겨진 미스터리와 신비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림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여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한다.

- 이주현, 『지식의 미술관』 재구성

[마]

The New Deal was a series of programs to restore prosperity to American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When the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took office in 1933, he acted swiftly to face the challenge at hand: to stabilize the economy and provide jobs and reliefs to those who were suffering. Over the next eight years, the government took action to bring about economic reforms, vastly increasing the scope of the federal government's activities. Roosevelt's New Deal fundamentally changed the U.S. federal government in its role in the economy. Maintaining the traditional market economy, in which the power of government should be limited, the New Deal generally embraced the concept of a government-regulated economy in order to meet the social needs and consequently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재구성

[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때는 적지 않은 갈등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직원의 재계약 혹은 해고를 결정하는 원칙을 가진 조직이 있다고 하자. 어떤 직원이 지난 15년 동안 회사를 위해 매우 지대한 공헌을 해 왔지만, 최근 1년 동안의 업무 실적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자. 앞으로 그가 업무수행 능력이 더 향상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1) 최근 1년 동안의 업무 성과만을 고려하여 그를 해고할 것이다.
- 2) 그간의 조직에 대한 공헌을 참작하여 그와 재계약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A 문화권의 사람들은** 1)을 선택한 반면, **B 문화권의 사람들은** 2)를 선택했다.

- 리처드 니스벳, 『생각의 지도』 재구성

[사]

S#13. 광화문 앞 (낮)

혜강 맨 앞에 앉아 있고, 유생들 뒤에 앉아 “전하!” 하며 시위하고 있는데,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패도 등을 들고 와, 시위하는 유생들의 앞에 놓는다. 이게 뭔가 싶는데 이때 이도가 걸어 나와 혜강의 앞에 앉는다. 경비를 서고 있던 채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혜강 (그런 이도를 보며) 전하! 어찌 성리학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적이 되려 하시옵니까?

이도 좋소! 허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 일인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하고는 유생들 모두에게) 누구든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

cut. 이도의 패도에 크게 쓰여 있는 ‘武(무)’자. 앞엔 혜강이 있다.

혜강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옵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개념이옵니다. (화면은 ‘무’ 자 보이며) 보시옵소서. 싸울 무 자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도 (보고)

혜강 즉 싸울 무 자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 있는 것이옵니다. 현대…… 다른 이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사옵니까?

이도 …….

혜강 전하의 글자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사옵니까?

채윤 (보는데)

이도 아니오, 없소.

혜강 (그럼 그렇지) 현대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이도 허면 말이오. (하며 궤도로 간다.)

cut. 궤도엔 ‘作開言路 達四聰’이라 써 있고, 앞엔 이도가 서 있다.

이도 작개언로 달사총, 즉 언로를 띄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오.

혜강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이도 (무시하고) 삼봉 정도전의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혜강 (멈칫) / **모두** (멈칫)

이도 요순 3대에는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로는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 나라에 이르러 언로를 터 주기 위해 간관을 만들었으나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로는 더욱 막히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채윤 (보는데) / **혜강** …….

이도 이는 말이오.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오. (점점 강한 목소리로)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채윤 (보는데)

이도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올린 것이오! 하여 언로가 막혔다 쓴 것이오! 삼봉은!

혜강 …….

이도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로를 띄워 주고 싶고,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 것이오?

- 김영현·박상연, 『뿌리 깊은 나무』 중에서

* 간관: 임금의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고 모든 벼슬아치의 비행을 규탄하던 관리

[문제 1] 아래 대화 내용의 핵심어와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가) ~ (바)에서 밑줄 친 주체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40점)



image: Freepik.com

[문제 2] (라)와 (마)의 입장을 〈보기〉의 ‘변화의 방식’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각 입장을 〈보기〉의 ‘더 나은 방향’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240점)

〈보기〉

우리는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거나 약간의 거리를 두고 시스템을 바라보기도 한다. 일부는 기존 시스템 자체의 문제와 한계를 고민하면서 그 제도

와 규칙 속에서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던 시스템이 새로운 형태로 대체됨으로써 세계가 발전해 온 측면도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세상에는 좀 더 나은 방향을 지향하는 두 가지 변화의 방식이 존재한다.

- ① 기존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방식
- ②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방식

[문제 3] (사)에서 ‘글자를 만드는 일’에 대한 이도의 생각을 요약하고, 〈보기〉에서 언급한 듀이의 관점을 적용하여 이도의 생각이 도구주의적 인식이 되는 근거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320점)

〈보기〉

존 듀이(John Dewey)에 의하면 인식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는 도구이다. 그가 말하는 도구주의에서의 인식이란 ①당면한 문제를 인지하고, ②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 뿐만 아니라, ③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지식도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도구의 가치는 도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한 결과에 있다는 것이다.

- 박해용·심옥숙, 『다시 읽는 서양철학사』 재구성

■ 예시 답안

[문제 1]

대화를 통해 ‘원칙적 적용’과 ‘비원칙적 적용’이라는 분류 기준이 도출되며, (가) (다) (바)는 원칙적 적용의 사례로 (나) (라) (마)는 비원칙적 적용의 사례로 분류된다. (가)의 마르쿠스는 문자화나 효용성 여부와 상관 없이 법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나)의 브레히트는 전통 연극론의 틀을 깨는 새로운 연극을 창시했다. (다)의 직업인은 청렴의 덕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의 마그리트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통해 기존의 사실주의를 거부한다. (마)의 루스벨트는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적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부규제라는 개념을 포용한 뉴딜정책을 시행하였다. (바)의 A 문화권 사람들은 해당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고려하여 재계약 또는 해고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따랐다. (402자)

[문제 2]

두 가지 ‘변화의 방식’을 기준으로 (라)의 데페이즈망은 현실의 법칙을 벗어난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표현하는 등 기존의 사실주의 기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바꾼 예이며, (마)의 뉴딜정책은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적인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 규제라는 개념을 경제체제 안으로 포용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개선책을 모색한 예로 비교된다. (라)의 데페이즈망은 기존의 사실주의 기법에서 불가능했던 미스터리와 신비에 대한 환상 및 자유와 상상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마)의 뉴딜정책은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회복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기대케 한다는 점에서, 둘 모두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450자)

[문제 3]

이도는 유학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인 백성의 언로를 띄워야 하지만 관료들이 백성의 뜻을 왜곡하거나 편집해 올리기 때문에 한자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백성의 언로를 띄워 만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려면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기>에서 듀이의 도구주의적 인식은 ①당면한 문제를 인지하고 ②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③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말한다. 이도는 ①유학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백성의 언로를 띄워야 하지만 한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당면 문제를 인지하고, ②언로의 왜곡과 편집을 막기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③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으므로 언로가 트이게 되는 결과를 낳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유학의 도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므로 이도의 생각은 듀이의 도구주의적 인식에 부합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502자)

■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 제시된 두 사람의 대화에서 ‘원칙’이라는 핵심어와 이에 대한 두 화자의 상반된 관점을 통해 ‘원칙적 적용(원칙의 절대적 적용)’과 ‘비원칙적 적용(원칙의 가변적 적용)’이라는 분류 기준이 도출, 언급되어야 함. - 여섯 개의 제시문이 두 개의 분류 기준 ‘원칙적 적용’과 ‘비원칙적 적용’에 따라 구분되고, (가) (다) (바)는 첫 번째 그룹에, (나) (라) (마)는 두 번째 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 및 유사어를 중심으로 두 개의 대립 쌍으로 요약되어야 함. ‘원칙적 적용’ 그룹 핵심어 및 유사어: 원칙적, 절대적, 예외 없이, 반드시 등 ‘비원칙적 적용’ 그룹 핵심어 및 유사어: 비원칙적, 가변적, 예외적, 융통적, 거부, 깨기 등	240
문제2	<보기>에서 제시된 ‘변화의 방식’을 기준으로 (라)와 (마)의 입장을 비교하고, 각 입장을 <보기>에서 언급한 ‘더 나은 방향’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보기>의 두 가지 ‘변화의 방식’을 파악하고 (라)와 (마)의 입장에 연결한 뒤, 두 입장을 비교해야 함. - 기존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방식 --> (마)의 뉴딜정책은 전통적인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 정부 규제라는 개념을 수용 - 기존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방식 --> (라)의 데페이즈망은 기존의 사실주의 기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기법을 사용 <보기>의 ‘더 나은 방향’의 관점에서 (라)와 (마)의 부합하는 내용을 찾아 기술함으로써 양 입장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평가의 근거로 제시해야 함. (마)의 뉴딜정책은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회복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기대케 함 --> ‘더 나은 방향’의 변화 지향	240

문항	[채점요소]	배점
	- (라)의 테페이즈망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미스터리와 신비에 대한 환상 및 자유와 상상의 공간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줌 --> '더 나은 방향'의 변화 지향	
문제3	〈보기〉가 제시한 '도구주의적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용해 제시문 (사)에서 '글자를 만드는 일'에 대한 이도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것이 '도구주의적 인식'으로 타당성 갖는 근거를 추론해야 함. [이해] 〈보기〉에서 '도구주의적 인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①당면한 문제를 인지하고 ②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③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고 능력 (사)에서 '글자 만드는 일'에 대한 이도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함: 그는 유학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인 백성의 언론을 띄워야 하나 관료들이 백성의 뜻을 왜곡해 편집하여 올리기 때문에 한자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언론을 띄워 만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려면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는 입장 [추론] 〈보기〉의 관점을 (사)에 적용해, 이도의 생각이 '도구주의적 인식'으로서 타당함을 입증할 각 세목별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이도는 ①유학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백성의 언론을 띄워야 하지만 한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당면 문제를 인지하고, ②언론이 왜곡되고 편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③그 결과로 1)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왜곡 없이 전달함으로써 언론이 트이게 될 것임을, 2)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유학의 도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 이를 통해 이도의 생각이 '도구주의적 인식'에 부합함이 추론됨.	320

[문제 1]

등급	[채점 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제시된 두 사람의 대화에서 '원칙'이라는 핵심어와 '원칙적 적용(원칙의 절대성)'과 '비원칙적 적용(원칙의 가변성)'이라는 분류 기준 도출 - 여섯 개의 제시문이 두 개의 분류 기준 '원칙적 적용'과 '비원칙적 적용' 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냐에 따라 (가), (다), (바) 그룹과 (나), (라), (마) 그룹으로 분류하여 기술 - 각 제시문의 요지가 아래 핵심어/유사어를 포함하여 기술된 경우 '원칙적 적용' 그룹: 원칙적, 절대적, 예외 없이, 반드시 등 '비원칙적 적용' 그룹: 비원칙적, 가변적, 예외적, 융통적, 거부, 깨기 등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A+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법 오류가 한두 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B+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지만 '원칙적 적용'과 '비원칙적 적용'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원칙적 적용'과 '비원칙적 적용'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과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 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제시문 중 일부만을 요약하거나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등급	[채점 기준]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 기준]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보기〉의 두 가지 ‘변화의 방식’을 (라)와 (마)의 입장에 연결한 뒤, 두 입장을 비교·분석하여 기술한 경우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기존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방식 --> (마)의 뉴딜정책은 전통적인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 정부 규제라는 개념을 수용 - 기존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방식 --> (라)의 테페이즈망은 기존의 사실주의 기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기법을 사용 - 요건2: 〈보기〉의 ‘더 나은 방향’에 부합하는 (라)와 (마)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양 입장 모두가 ‘더 나은 방향’의 변화를 지향한다는 평가를 도출하여 기술한 경우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마)의 뉴딜정책은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회복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기대케 함 → ‘더 나은 방향’의 변화 지향 (라)의 테페이즈망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미스터리와 신비에 대한 환상 및 자유와 상상의 공간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줌 → ‘더 나은 방향’의 변화 지향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
	A- - 내용 면에서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 - 주어진 자수±1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B+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언급한 요건 1, 2 중 1개가 미흡하게 작성되거나 일부 누락.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언급한 요건 1, 2 모두 미흡하게 작성되거나 일부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A+에서 언급한 요건 1, 2 중 1개 전체가 누락.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450자)±20%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비교 혹은 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3]

등급	[채점 기준]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내용 면에서 아래 사항에 대한 이해와 추론 내용을 모두 명확하게 전달한 경우 [이해] 〈보기〉에서 ‘도구주의적 인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①당면한 문제를 인지하고 ②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③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라고 기술

등급	[채점 기준]
	- (사)에서 ‘글자 만드는 일’에 대한 이도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함: 그는 유학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인 백성의 언로를 띄워야 하나 관료들이 백성의 뜻을 왜곡해 편집하여 올리기 때문에 한자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언로를 띄워 만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려면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기술 • [추론] - 〈보기〉의 관점을 (사)에 적용해, 이도의 생각이 ‘도구주의적 인식’으로서 타당함을 입증할 각 세목별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이도는 ①유학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백성의 언로를 띄워야 하지만 한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당면한 문제를 인지하고, ②언로가 왜곡되고 편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③그 결과로 1)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왜곡 없이 전달함으로써 언로가 트이게 될 것임을, 2)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유학의 도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 이를 통해 이도의 생각이 ‘도구주의적 인식’에 부합한다는 추론 결과라고 기술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 * [추론] ③ 결과 예측 항목에서 2)번 반드시 포함해야 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 [추론] ③ 결과 예측 항목에서 2)번 항목 누락 -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법 오류가 한두 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	• 내용 면에서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 - 주어진 자수 ±10%의 오차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B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해] 항목 중 일부 누락 - [추론] 항목 중 일부 누락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다소 벗어나 작성됨
	• 내용 면에서 B0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사용이 다소 부정확함 - 관용구, 표현 등이 일부 부자연스러움 - 문장 간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못함 - 단락 구분에 작은 오류가 있음
C	•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해] 항목 전체 누락 - [추론] 항목 전체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50자 이상이 작성됨
D	• [이해] 항목 전체와 [추론] 항목 전체를 누락한 경우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AI 논술 자동 첨삭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